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24장 이혼에 대한 가르침

『산상설교』 상권 제24장, 인쇄 319~330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31-32

❓ 결혼이 너무 힘들거나 성격이 안 맞으면 끝내도 되는 걸까? 예수님은 이혼을 정확히 어떻게 보셨을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많은 설교자가 이 본문을 슬쩍 건너뛰지만, 삶의 어느 영역도 성경 밖에 있지 않으니 피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여섯 대조(“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이르노니”)가 모세를 고치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잘못된 해석을 고치는 말이라는 문맥을 다시 세운다. 그다음 모세의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해석, 주님의 가르침을 차례로 살핀다. 모세는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제한했고, 바리새인은 그것을 이혼 명령과 절차 문제로 바꿔 놓았다. 주님은 창조 때의 결혼, 곧 '한 몸'으로 돌아가 음행만이 유일한 이혼 사유라고 선언하신다. 설교는 간음조차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위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서약을 지키는 일은 내 삶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권면으로 끝난다.

📜 절별 정리

📜 1. 피하지 말아야 할 본문, 그리고 그 자리

로이드 존스는 많은 주석가와 설교자가 이 두 절을 다루지 않고 지나간다는 사실부터 짚는다. 왜 피하고 싶은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확인한다. 이 본문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하는 여섯 대조 가운데 하나다. 주님은 이 대조들 앞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먼저 밝히셨다. 그러므로 여섯 대조에서 주님이 맞세우시는 상대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거짓 해석이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영예롭게 하신다.

1. 불편한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2. 삶의 어느 부분도 성경 밖에 있지 않다
3. 여섯 대조의 상대는 모세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다
4. 주님은 율법을 고치지 않고 영예롭게 하신다
5. 공부 순서: 모세 → 바리새인 → 주님

마태복음 5:17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대전제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18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 모세 율법의 권위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9

계명을 버리지 말고 행하며 가르치라는 경고

>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20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 여섯 대조의 배경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31-32

이 장의 설교 본문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삶의 어느 부분도 성경의 범위 밖에 있다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 2.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제한'했다

모세의 가르침은 신명기 24:1-4에 있다. 로이드 존스가 먼저 짚는 점은 구약에서는 이혼과 관련해 간음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으므로, 그 결혼은 이혼이 아니라 사형으로 끝났다. 당시 남자들은 여자를 하찮게 여겨 사소한 구실로 아내를 내보냈다. 그는 그 뿌리를 정욕으로 보며, 주님이 이 주제를 바로 앞의 색욕 문제(마태복음 5:27-30)와 이어 놓으신 점에 주목한다. 흠정역(A.V.)은 두 주제를 한 단락에 넣었는데, 그것이 옳은지는 몰라도 둘의 깊은 관계를 일깨워 준다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여인과 아이들이 겪던 고통을 바로잡으려고 세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혼 사유를 '수치 되는 일', 곧 생리적·도덕적·육체적 결함으로 좁혔다.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남편은 이를 두 증인 앞에서 확증해야 했다. 둘째, 이혼증서를 주게 했다. 증서에는 아내가 간음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서, 아내가 간음죄로 몰려 돌에 맞는 일을 막았다. 셋째, 한 번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해도 첫 남편과는 재결합할 수 없게 했다. 결혼이 내키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보이려는 것이었다. 그는

1. 구약에서 간음은 사형으로 결혼이 끝났다
2. 이혼의 뿌리는 정욕이다(5:27-30과 연결)
3. 사유 제한·이혼증서·재결합 금지의 세 원칙
4. 이혼증서는 버림받은 여인을 지키는 장치였다
5. '눈은 눈으로'처럼 혼란을 제한하는 법이다

신명기 24:1

이혼 사유를 '수치 되는 일'로 제한하고 이혼증서를 요구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2-4

재혼한 여인이 첫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게 함 — 결혼의 엄숙함

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27-28

바로 앞의 색욕 문제 — 이혼의 궁극적 뿌리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1:24

'눈은 눈으로' — 보복을 제한하는 법의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3.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어떻게 비틀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모세가 특정 조건에서는 아내를 버리라고 '명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에게도 이혼을 명하지 않았다. “이혼하려거든 이런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들은 '부정'이라는 말에 자기 해석을 덧붙여,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점만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넓혔다. 그 결과 주님 당시 수많은 여인이 하찮은 이유로 버림받았다. 그들이 꼼꼼히 챙긴 것은 단 하나, 이혼증서를 제대로 써 주는 절차였다. 왜 아내를 버리는지는 관심 밖이었다. 주님이 “또 일렀으되 …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인용하신 것이 바로 이 태도다.
이혼증서는 모세 율법에 있는 것이지만 율법의 골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강조하다가 결혼의 참뜻을 놓쳤다. 이렇게 교묘한 해석과 전통이 율법의 본래 목적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었다.

1. 바리새인은 허락을 '명령'으로 바꿨다
2. '부정'을 어떤 불만이든 포함하도록 넓혔다
3. 이유는 묻지 않고 증서 절차만 챙겼다
4. 부차적인 것을 강조해 결혼의 참뜻을 잃었다
5. 전통이 율법의 목적을 무효로 만들었다

> **마태복음 5:31**
> “또 일렀으되” — 바리새파식 가르침의 요약
>
>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 **마태복음 19:3**
>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 그들의 사고방식
>
>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 **마태복음 19:7**
> “모세는 어찌하여 … 명하였나이까” — 허락을 명령으로 읽은 증거

>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 4. 주님의 첫째 원칙: 처음으로 돌아가라 — '한 몸'

주님의 짧은 선언은 마태복음 19:3-9에서 충분히 풀린다. 주님은 모세를 넘어 하나님이 처음 주신 법으로 돌아가신다. 첫째 원칙은 결혼의 신성함이다. 로이드 존스는 결혼이 민법상의 계약도, 성례도 아니라고 말한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일이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때 이전의 유대가 끊어지고 성질이 전혀 다른 새 유대가 생긴다. 그래서 결혼에는 풀 수 없는 영구성이 있다. 이 원칙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된다. 바울도 간음이 무서운 까닭을 창녀와 '한 몸'이 되는 데서 찾는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을 허락했는가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주님의 답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다. 하나님은 처음 법을 폐하지 않으셨다. 당시 만연한 형편 때문에 임시법을 두어 양보하셨을 뿐이다. 그 법도 사실은 백성을 처음 뜻 쪽으로 이끄는 도구였다.

1. 주님은 모세를 넘어 창조 질서로 돌아가신다
2. 결혼은 계약도 성례도 아닌 '한 몸'이다
3. 결혼에는 풀 수 없는 영구성이 있다
4. 모세의 허락은 완악함 때문에 둔 임시법이다
5. 임시법도 처음 뜻을 향해 이끌었다

> **창세기 2:24**
>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 결혼의 원형
>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 **마태복음 19:4-5**
> 주님이 창조의 처음으로 돌아가 결혼을 설명하심
>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마태복음 19:6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함

>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8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 — 본래는 그렇지 않음

>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6:16

창녀와 합하면 한 몸 — '한 몸' 원칙의 일관성

>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 5. 둘째 원칙: 하나님은 이혼을 명하신 적이 없다

첫째 원칙은 자연스럽게 둘째 원칙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이혼을 명하지 않으셨다. 이혼이 허가될 경우 증서를 주라고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혼하라는 명령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이 풀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사랑과 용서의 법을 가르친다. 로이드 존스는 “그녀가 내 삶을 망쳐 놨으니 이혼해야겠다”는 식의 법적 접근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무가치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았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특히 결혼 관계를 이 사실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1. 이혼 허가와 이혼 명령은 다르다
2. 성경은 결혼의 영구성과 용서의 법을 함께 가르친다
3. “내 삶을 망쳤다”는 법적 셈법을 버리라

신명기 24:1

"만일 … 이면" — 조건을 단 규정일 뿐 명령이 아님

>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마태복음 19:7-8

바리새인은 "명하였다", 주님은 "허락하였다" — 차이를 밝히심

> 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5:32

주님도 이혼을 명하지 않고 그 한계만 선언하심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무 데서도 이혼을 명하신 일이 없다"

📜 6. 셋째 원칙: 이혼 사유는 오직 '음행' 하나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한다. 합법적인 이혼 사유는 '음행' 하나뿐이다. 음행은 결혼한 부부 한쪽의 성적 부정을 포괄하는 말이다. 그는 이혼을 더 쉽게 만드는 제도들이 형편을 악화시키는 혼란한 시대를 언급하며 이 원칙의 무게를 강조한다. 고린도전서 7장이 좋은 예다. 초대교회에서는 한쪽만 회심한 부부가 "세상과 분리하라"는 가르침을 듣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곤 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했다. 믿는 배우자 덕분에 믿지 않는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조차 이혼 사유가 아니다.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아무리 커도, 성격이 아무리 달라도 마찬가지다. 음행이 사유가 되는 까닭은 다시 '한 몸'에 있다. 간음한 사람은 이미 그 결합을 깨고 다른 사람과 결합했다. 다만 이것도 명령이 아니라 권리이며,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당한다. 그 외의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유대는 깨지지 않은 채 남는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재혼하면 남편이 그를 간음하게 한 셈이 되고, 그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 된다.

1. 유일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성적 부정이다
2. 불신 배우자도 성격 차이도 사유가 아니다
3. 간음은 '한 몸'의 결합을 이미 깨뜨린다
4. 그때도 이혼은 명령이 아니라 권리다
5. 다른 이유로 버리면 상대를 간음하게 한다

> **마태복음 5:32**
> 음행 외의 이혼은 아내를 간음하게 함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 **마태복음 19:9**
> 음행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면 간음 — 유일 사유의 확증
>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 **고린도전서 7:12-13**
>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 — 회심 여부도 사유 아님
>
> 12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 7. 입법자 그리스도, 용서의 복음, 그리고 지켜야 할 서약

로이드 존스는 이 가르침의 결과를 정리한다. 주님은 여기서 자신을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신다. 모든 법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을 위한 임시법, 곧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철폐하셨다. 그 대신 간음을 정당한 이혼 사유로 세우셨다. 여기서 그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추론을 하나 끌어낸다. 배우자의 간음 때문에 이혼한 사람은 자유인이며 재혼할 권리가 있다. 그다음 그는 죄를 부추기는 말로 들릴까 두렵다고 하면서도, 복음과 진리를 위해 말한다. 간음조차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면 용서받는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야를 넓힌다. 사람들이 가장 엄숙한 결혼 서약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라들이 조약을 지키기를 기대하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개인의 삶에서 먼저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1. 주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신다
2. 간음에 대한 사형법을 이혼 사유로 바꾸셨다
3. 무고한 쪽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
4. 간음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다
5. 서약을 지키는 일은 내 삶에서 시작된다

> **마태복음 5:32**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 입법자로서의 권위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으로 인한 이혼의 정당성과 재혼에 대한 추론의 근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요한복음 8:11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 용서와 거룩의 결합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마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이혼증서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때 손에 쥐여 주던 문서로, 그녀가 간음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님을 밝혀 재혼과 생명을 지켜 주었다.

음행

여기서는 결혼한 부부 한쪽의 성적 부정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말이다.

한 몸

결혼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이전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결합이 생겨, 사람이 나눌 수 없게 된 상태다.

불용해성(불가해성)

한 번 맺어진 결혼은 풀리지 않는다는 성질, 곧 결혼의 영구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게 된 이유로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다.

임시법(양보)
하나님이 처음 뜻을 폐하지 않으면서, 죄로 어지러운 상황의 피해를 제한하려고 잠시 두신 규정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해석
율법에 전통과 교묘한 해석을 덧붙여,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하면서 그 목적을 무효로 만든 가르침이다.

흠정역(A.V.)
1611년에 나온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마태복음 5:27-32를 한 단락으로 묶어 색욕과 이혼의 관계를 보여 준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권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악한 관행을 제한하고 여인을 보호했다.
- 바리새인은 그 허락을 명령으로, 사유를 아무 불만으로, 핵심을 증서 절차로 바꾸어 율법의 목적을 무효로 만들었다.
- 주님은 창조의 처음으로 돌아가 결혼이 풀 수 없는 '한 몸'이며, 유일한 이혼 사유는 음행뿐이라고 선언하셨다.
- 이혼은 그때에도 명령이 아니라 권리다. 결혼 관계는 값없이 용서받은 은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간음조차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따른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